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5건 선정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 향교 · 서원 · 문화재야행 · 전통산사 · 고택 · 종갓집 활용

문화재청은 내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으로 '생생문화재' 165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07건, '문화재야행' 45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3건, '고택·종갓집 활용' 45건 등 총 405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2008년부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야행은 2016년부터,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2017년부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돼 운영 중이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568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콘텐츠 우수성과 사업운영 역량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405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잡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접수된 총 238건 중 165건을 선정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시작자인 1~2년 된 '시범유형' 45건(27%), 3~5년 차인 '집중유형' 74건(45%), 6년 차 이상인 '지속발전형' 46건(28%) 등이 선정됐다.

'시범유형' 사업에는 ▲경북 영주시 '골목 따라 추억따라 관사골 이야기' ▲전북 부안군 '부안 우반동! 반계선생의 생각발전소' ▲울산 남구 '도심 속 이흥정, 울산 문화유산 꽃피우다' 등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 32건이 포함됐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38건의 신청 중 107건을 선정했다. 내년에는 새롭게 ▲경북 상주시 상주향교 ▲제주 오현단(굴림서원) 등 13개가 추가로 선정됐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에 집적된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68건의 공모사업 중 15개 시·도 45개 사업이 선정됐다.

'순천 문화재 야행'과 '수원 문화재 야행', '강릉 문화재 야행' 등 34건은 작년 이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문화재 야행', 경남 진주 '진주 배미록, 진주성 민초 이야기' 등 총 11건이 새로 추가됐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사람이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등의 형태로 풀이한 고품격 산사문화 향유 프로그램이다.

총 56건의 공모사업 중 43건을 선정했다. 경북 경주시 칠발암 '칠발암 5갑 체험', 충북 청

주시 용화사 '대한민국 마지막 원할 칠존석불에 기원하다' 등 39건의 기존 사업과 더불어 세종 영평사 '나한, 부처를 알리다', 충남 금산군 신안사 '身安(신안)! 돌래길 몸과 마음 찾기!' 등 4건의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종갓집의 의·식·주, 의례 등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68건의 신청 중 45건을 선정했다.

전북 정읍시 김명관고택 '오감민족,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경북 영덕군 갈암종택 '홍범 연의를 담은 갈암종가', 충남 부여군 여흥민씨고택 '옛 집에서 만나는 사랑방 이야기' 등 국내 곳곳의 고택·종갓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디지털 뉴딜 정책기조에 동참하고자 현행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객들에게 실감나는 문화유산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1~2차 심사를 거쳐 총 62건 중 최종 13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구 '메타버스 타고 월봉유랑하자', 제주 서귀포시 '찾아라! 묘법연화경, 실감법화경', 충남 공주시 '공주 그날의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AR 실감콘텐츠' 등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유산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다.

/뉴스

군산예술의전당, '하우스 콘서트' 개최

29일 비올리스트 이한나 ·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공연

저녁 바람이 가을임을 느끼게 되는 9월!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Viola 이한나 & Piano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하우스 콘서트를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하우스 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를 관객들이 무대 가까운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대에는 칼라치 스트리 콰르텟,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등의 앙상블 멤버로 활약함과 동시에 솔리스트로서 대체불가 비올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이한나와 러시아인 피아니스트로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1위의 기록을 가진 일리아 라쉬코프스키(현 성신여대 교수)의 완벽한 앙상블의 무대를 관람 할 수 있다.

하우스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라북도과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한다. 전석 무료로 운영되나 비대면 티켓운영을 위해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공연장 방역 및 관객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Viola 이한나 & Piano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하우스 콘서트를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군산=남현봉 기자

'박물관에서 전통 민속놀이 체험하세요'

국립전주박물관, 18~22일 '한가위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18일~22일까지 '한가위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세시풍속과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박물관 옥외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팽이와 제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 할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마당과 사물놀이마당, 추억의놀이마당, 그리고 뿔통, 절구, 도량형기구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옛 생활도구체험마당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됐다.

또한 용담댐 건설 20주년을 기념해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용담 마을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옛 용담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 볼 수 있는 특별전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도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장인원이 시간당 24명으로 제한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한가위 민속놀이마당 포스터.

복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정현희 '비밀의 화원'



최미경 '너 없이 걸었다'



홍찬석 'You&I'

전북대박물관, '나도 작가다' 두 번째 전시

30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서 직원들 참신한 작품 만날 수 있어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홍찬석)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동행'에 본교 직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이 내 걸린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역민들과 문화예술 공간을 공유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세계를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展의 일환으로 델로스 작가 초대전에 이어 '나도 작가다'라는 전시를 통해 전북대 여

교수회와 직원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나도 작가다' 릴레이 전시 두 번째 마당은 전북대 직원들의 참신한 작품으로 채워졌다. 16일부터 30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에서 그림과 서예, 사진, 조소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전북대 구성원 전체의 화합과 소통을 목표로 작품이 모아졌다. 누구나 작가가 돼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은성기자

의미를 담아낸 이번 전시는 지역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홍찬석 관장은 "대학 박물관의 문화예술 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아 '동행' 전을 연이어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민과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나누고, 전북대박물관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감,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동주 등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작품 편역서, 일본서 출간

원광대학교는 박맹수 총장이 활동하고 있는 문명란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와 김정훈(전남과화대) 교수가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의 작품을 모은 편역서를 일본에서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편역서 '한 개의 별을 노래하다-조선 시인의 독립과 저항의 노래'는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심훈, 이상화, 조병희 등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6인의 작품이 수록됐다.

이 책은 김정훈 교수가 편역을 주도했으며 일본 후바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저항시인 6인의 흔과 정신을 잇는 활동을 펼쳐 온 민족시인 문명란(1935-2015)

기념사업회 설립 준비 과정 중 논의를 거쳐 출간됐다.

책은 문명란 시인이 추구한 민족 문화와 그가 애송하던 식민지 시기 저항 시인의 시편을 한데 묶었다.

또 저항 시인의 주요 작품을 10편씩 선정해 한글 원문과 일본어로 소개하고 각 시인의 생애와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소개된 시인들은 우리나라 민중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들로 국내에서 변함없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윤동주를 비롯해 이들 시인이 소개되고 있다.

문명란 시인은 저항 시인의 민족정신을 수호

/뉴스

'대한민국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 동리대상 후보자 공개모집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제31회 동리대상 수상 후보자를 9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동리대상은 고창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이 사장 이만우)가 동리 신재효의 문화예술사업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후보자 신청 자격은 국가·지방 판소리 무형 문화재나 판소리 연구 또는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창작자, 교수, 연구자와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법인 포함)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동리대상은 심사위원회 비공개 토론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고창=김영식기자

하기 위한 실천 운동과 민족운동에 헌신해 왔다.

문명란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민족·민중운동을 펼쳤던 문명란 선생의 뜻과 유지를 기리기 위해 기념사업회를 준비하고 있다.

문명란 선생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조선 시인의 저항과 독립정신을 통해 신군부 세력의 지배 현실과 그 모순을 유익적 화합으로 지적하며 민주·민중 의식과 민족통일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과 백나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 문명란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편역자인 김정훈 교수와 함께 문명란 시인이 평가한 대표적인 시인들의 시편을 정리해 완간에 이르게 됐다.

/뉴스

제31회 동리대상 시상식은 11월 6일 오후 2시 동리국악당에서 열리며 수상자와 제자 등이 꾸미는 축하공연도 함께한다.

고창군은 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효의 유업을 계승하고 판소리 발전을 위해 동리정사를 재현하고,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와 판소리 체험을 개최하는 등 판소리 발상지이며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